

AUTHOR 정승원 (Seung-Won Jung)

TITLE 한국교회의 개혁신학을 위한 발제
- 코넬리우스 반틸의 신학을 중심으로 -

IN 신학정론

vol.20 no.1 (May, 2002): 169-193

사변적이요, 철학적인 삼위일체론을 거부하고, 전통적인 개념을 주장하는 것도 피하였던 진정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확실성을 전파하려는 데 있었다.⁷²⁾

요약하자면, 칼빈의 삼위일체론은 구원론적으로 풀이되고 전개되었다. 이것은 아타나시우스에게서도 보여졌으며, 서방신학과 동방신학의 삼위일체론에서 간과되어온 문제점을 바르게 교정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종교개혁자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며, 기독교론적인 삼위일체론을 제시한 신학자는 단연 칼빈이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서 요한 칼빈만큼 삼위일체론을 깊이 있고, 광범위하게 다룬 신학자는 없다. 칼빈 신학의 근본원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만, 그 내용은 결국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⁷³⁾ 칼빈의 신학저술 전반에는 극도로 혼란한 하나님에 대한 이단적 해설들, 서방신학의 삼신론과 양태론의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동방신학의 종속설과 성부우위설에 빠지지 않는 성경적, 구원론적 삼위일체론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후 13:13). 아멘. (*)

72) Timothy George, *Theologies of Reformers* (Nashville: Broadman, 1988), pp. 200~201.

73)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7), p. 129.

한국교회의 개혁신학을 위한 발제

- 코넬리우스 반틸의 신학을 중심으로 -

정 승 원

<조직신학·전임강사>

서론
본론

1.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2. 일관된 신학을 위한 반틸의 주요한 신학적 이슈들
 - 1) 하나님의 주권
 - 2) 일관성 있는 신학 체계의 전제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계시
 - 3)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결론

서론

지난 100년 동안 한국교회에 어떤 나라의 교회보다 개혁주의¹⁾ 전

1) 필자가 의미하는 ‘개혁주의’는 단지 대명사적 의미의 어떤 특정한 교단이나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도 소위 개혁교회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혁교회는 이미 자유주의 노선을 견고 있다. 예를 들어, 요르겐 몰트만

통이 강하게 이어져 내려왔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 전통이 흔들리고 있다. 모르긴 몰라도 '개혁주의' 하면 오히려 거부 반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심지어 보수주의자들 가운데도 개혁주의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왜 그런가? 가장 큰 이유는 개혁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개혁주의가 단순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싫어할 것이고,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개혁주의가 어떤 지식적 교만과 진부한 주장들만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싫어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의 보수신학을 일관성 있게 지켜 줄 신학적 체계가 개혁주의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우리 자신도 개혁주의를 어떤 지식적 체계인 것으로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부하고 고루한 인상을 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거부 반응을 갖게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사실 개혁주의는 단지 지식적 체계만이 아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총체적 삶을 강조하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로 개혁주의를 단지 지식적 체계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 본 사람들의 무지도 문제지만 그들이 그렇게 보도록 만든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정론이다. 보수주의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예정론을 어떤 운명론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정(엡 1:4~5; 롬 9:10~33)이 단지 운명을 의미한다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예정이란 우리 인간에게 속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진리인 것이다. 예정이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

은 개혁교단의 학자이다. 그렇다고 그를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루터의 정신을 이어서 모든 것을 개혁한다고 하는 의미의 개혁주의는 오히려 칼빈주의적 개혁주의에 역행하는 신학이라고 하겠다. 한국교회에서도 개혁주의란 말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하겠다.

이 절대적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다. 예정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절대적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라는 것이 예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정은 절대적 하나님과 일관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절대적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예정은 단지 운명처럼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극히 자유로운 삶의 모습인 것이다. 이 예정은 또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절대적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예정론을 우리 인간적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개혁주의를 따른다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이 예정론을 오히려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이고 자신들의 신학적 체계만이 진리라는 것을 주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 때문에 개혁주의의 정신이 퇴색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개혁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외에 한국교회에서 개혁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풍토 때문이다. “평 잡는 것이 매”라는 멘탈리티가 팽배해 있는 모습, 대형 교회가 최고라는 ‘대형 교회 신드롬’,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 인생을 바치는 많은 목사들의 모습, 교회의 세속화 및 물질주의 등이 그 실례들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그리고 거창하게 일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인간 중심적인 것이 너무 많은 것이 한국교회 실정이다. 이러한 인간 중심적 체계에서는 개혁주의가 반가울 리 없다. 또 한가지 한국교회의 인간 중심적 모습은 자신의 체험 중심 신앙, 혹은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을 오히려 믿음 좋은 것으로 환영하고 있고, 어떤 신학적 전통 같은 것은 냉랭하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마당에 개혁주의가 환영받을 리 만무하다.

이렇게 한국에서 개혁주의가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개혁주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개혁주의에 대해 새롭게 인식시켜줄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변증학 교수였던 코넬리우스 반틸의 신학을 부분적이나마 소개하여 그의 신학이 어떻게 한국 개혁주의를 다시 정립하는 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을지 피력하고자 한다.

본론

1.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개혁주의’란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특정한 신학 체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칼빈, 나스, 잔키우스, 존 오웬, 프란시스 터레튼, 조나단 에드워드, 제임스 톤웰, 핫지, 카이퍼, 바빙크, 위필드, 뵈트너, 벨콕, 머레이, 반틸 등 여러 개혁주의 학자들로 이어지는 신학적 체계가 개혁신학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또한 제네바 고백서, 스코츠 고백서, 벨직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조 등 역시 개혁신학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들로 세워진 신학적 체계 이전에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수호하려 했던 신학적-신앙적 그 무엇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뛰어난 학자들의 신학 체계들의 근거일 뿐 아니라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지켜 온 모든 일반 성도들의 신앙의 근거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근거는 인간의 신학적 체계나 고백보다 앞서서 존재한 것이다. 또한 그 근거가 무엇이나고 설명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개혁주의자들이 다 글로 설명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그것이 뭐냐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한파 디로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개혁주의를 어떤 특정한 신학 체계나 특정한 사람의 주장들과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학문적으로 혹은 고

백적으로 개혁신학을 논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앞서간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개혁주의 고백서들을 의존해서 논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학 체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우리도 그들처럼 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믿는 바 혹은 주장하는 바를 그들이 잘 설명해 왔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의 말들을 한다. “왜 자꾸 개혁주의, 개혁주의 하느냐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지 않느냐?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신학적 체계가 아니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미 개혁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야말로 유일한 신학적 체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개혁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성경이 유일한 신학적 체계임을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성경이 유일한 신학적 체계이다’라는 고백을 성문화해서 자녀들을, 후손들을 가르칠 것인가? 자신도 어떤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신학 체계를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신학적 관점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 즉 그 사람을 포함한 모두가 나름대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런 신학적 관점이 가장 성경에 부합되는 것이 개혁주의인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은 앞서간 개혁주의 학자들보다 더 성경에 부합된 신학적 체계를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개혁주의!’ 하는 것이다. 개혁주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신학 체계나 고백서와 정확하게 동일시되지는 않아도, 그것들에 의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틀이 짜지고 울타리가 쳐진 것이다. 이 틀과 울타리가 우리가 지켜온 개혁주의라 할 수 있고, 그 성경적 진리가 바로 그 신학 체계와 고백서가 주어지기 전에 개혁주의자들이 추구하고 수호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의 신학적 체계에 의해 개혁신학이 생긴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계시를 통해 갖게 된 신학, 신앙, 지식, 지혜, 사상, 고백,

체험, 느낌, 적용, 깨달음, 삶 등 모든 것을 통하여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정한 사람들의 신학 체제와 고백서를 개혁주의라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해서 뭐가 말하고, 밝히고, 가르쳐주고 싶어했던 신학적-신앙적 진리가 그들의 신학적 체계에 앞서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주의사항은 개혁주의에 거부 반응을 갖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세상을 바로 알고 인간을 바로 아는 일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그 지식을 체계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단지 개혁주의는 한 특정한 신학 체계와 동일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자들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이 성경을 최고의, 그리고 최종의 기준으로 삼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해석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바른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인가?”라는 동등의 물음에서 시작하여 신학 체계를 세워 왔기 때문에, 단지 개혁주의를 특정한 지식적 신학 체계로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개혁신학과 복음주의 신학 사이에 공통되는 주장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신학적 체계가 달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개혁주의 사상이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일관성 있는 신학 체계인지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특정한 사람들의 개혁신학과 특정한 고백서가 개혁주의의 전부인 양 믿고 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개혁주의자들이 추구하고 수호하려고 했던 것은 제쳐놓고 그들의 신학 체계만을 절대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이것은 사실 그들조차 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칼빈이 후대 사람들이 단지 자신의 신학 체계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수호하고 지향할 것을 원했을

리는 없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개혁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오히려 칼빈은 자신이 ‘무엇을 믿었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었는지,’ ‘무엇을 지키기를 원했는지,’ ‘얼마나 성경의 진리를 추구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주기 원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를 추구하고 수호하는 사람들은 개혁주의가 인간이 만든 신학적 체계들 중에서 가장 일관성 있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체계임을 확신하는 동시에 우리는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시대의 신학을 절대화하고 그들의 신학 체계가 절대적 체계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개혁주의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semper reformanda!)는 말은 계속적으로 좀더 성경에 가까운 체계를 추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대의 개혁신학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청교도들이 강조했던 말 중,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술이다!”(Theology is not a science of knowledge about God, but an art of life unto God!)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혹 자칫 잘못하면 개혁주의를 어떤 지식적 체계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지식적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과 성경을 근거로 하는 개혁주의 신학적 체계는 결코 지식적 체계만 될 수 없는 것이다.

2. 일관된 신학을 위한 반탈의 주요한 신학적 이슈들

1)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단지 우리 머리 속에만 적용되는 사상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칼빈이 가르친 것이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주창한 것이었다. 카이퍼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sphere)에서 다스린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세상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는 곳이 없다!”라는 말을 하곤 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 반틸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발전시켰다. 흔히들 ‘하나님의 주권’ 하면 보통 신앙적, 혹은 사회적 영역 같은 외형적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반틸은 하나님의 주권이 단지 외형적 삶의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 체계에도 적용됨을 강조하였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존재들이 불가능하고 창조물이 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의 활동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획기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안다는 것을 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생각한다.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 내 판단으로 지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반틸은 이러한 우리의 지식적 역할 이전에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바른 지식적 역할을 하지 못할 뿐더러 지식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사실 이러한 사상은 반틸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칼빈은 먼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이원화된 두 지식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인간을 알아야 하고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두 지식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가르침을 이어 반틸은 좀더 깊은 차원에서 그 의미를 발전시켰다고 하겠다.

반틸의 신학의 출발점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구분에서 시작된다. 그는 “나의 신학은 매우 단순하다”고²⁾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2) Cornelius Van Til, *The Defence of Faith* (Philadelphia, P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55), p. 23.

실재(reality)의 해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단지 존재론적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식론적 입장에서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의 지식과 존재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틸은 “하나님의 전지(omniscience)에 있어서 그의 지식과 그의 존재는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주장한다.³⁾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일치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로 계시는 분(존재론적 차원)이라는 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정의(지식론적 차원)도 된다는 것이다. 만약 사랑의 정의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서 나온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에 지식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므로 어떤 다른 것을 의존할 수 없으신 것이다. 즉 하나님은 어떤 존재론적 차원에서도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지식론적 차원에서도 다른 것을 의존하실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지식의 원천이요 모든 지식의 궁극적인 정의(definition)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는 지식의 원천과 궁극적인 내용 역시 하나님 자신이요 그의 계시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물론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지식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다.⁴⁾ 이 말은 우리의 지식이 가능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주어져

3) Cornelius Van Til, *An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4), p. 234.

4) 이것을 반틸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고를 해야 한다”(thinking God's thought after him)는 말로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유추적으로(analogically) 생각한다는 의미도 된다. 비록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식이 가능한 것은

야 한다는 것이다. 그 조건이란 바로 하나님이며 그의 계시인 것이다. 물론 하나님 안에 존재론적 차원과 지식론적 차원만이 서로 일관되는 것이 아니다. 그 외 윤리적 차원, 실천적 차원, 신앙적 차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충만”(fullness)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 안에 다 포함된 것이 서로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단순하게 나타나지는 것이다.⁵⁾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반털은 자주 “자함적”(self-contained) 하나님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자신이 아는 지식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이성이라고 해서 그 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혹은 중립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 그런가? 바로 우리의 이성 역시 피조된 이성이기 때문이요, 더욱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이다. 전적 타락은 단지 영적 혹은 윤리적 부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전적 타락인 것이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에는 사실 ‘전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의미이다. 만약 우리의 이성은 타락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도 ‘전적’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되었다고 해서 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다.

5) 이것을 소위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단순성”(simplicity)이라고 한다. 하나님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이 (지식, 능력, 사랑, 정의 기쁨, 자비, 뜻, 등) 말 그대로 단순하게 서로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면 형식적 이성의 활동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즉 어떤 짐승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타락한 후에도 이성의 활동이 존재한다. 문제는 어떤 이성의 활동이냐 하는 것이다. 그 이성의 가치와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이성의 활동 진위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성의 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하는 것이다. 바로 모든 것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지 형식적 이성의 활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우리의 신학(theo-logia)을 함에 있어서 핵심적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완전히 내재적으로 일관되고 단순하신 하나님에 관해 논하는 신학은 반드시 서로 일관되는 총체적 신학 체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개혁주의는 일관된 신학 체계를 세웠다. 모든 신학 분야가 서로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왔다는 것이다. 구약, 신약, 조직신학, 교회사, 실천신학, 기독교 철학, 윤리학 등 다른 분야들이 각기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단지 전문성과 범위가 다르다는 것뿐이다. 이러한 신학의 총체적 일관성의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단지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이고 하나의 독립된 아이디어로만 생각해온 경향이 있어 왔다. 즉 ‘하나님의 주권’은 단지 학문적 모토(motto)로서만 주어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데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치 삶의 적용은 실천신학에서만 다루는 것으로 잘못 생각해 왔다는 것이다. 신학의 소위 ‘compartmentalization’(분야화) 문제가 이러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신학의 분야가 독립되어 따로 발전해오면서 서로 일관성이 결여된 채 각자의 길을 걸어 왔다는 것이다.

즉 각 분야들의 특수성만 강조되어 왔지, 일반성은 도외시 되어온 것이다. 혹 이러한 '분야화'가 오히려 전문성을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되어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없이 전문성만 강조되어서는 오히려 전반적 신학 체계의 파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단지 조직신학 같은 데서만 강조하는 사변적 이슈가 아니라 해석학, 교회사, 실천신학 등에서도 강조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예를 들어, 해석학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해석하는 것과 인정하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해석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오는 것이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정경(canon)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구속사, 그리스도 중심, 내재적 일관성, 고대성 등등 여러 기준들이 있지만 사실 어떠한 것도 절대적 정경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 한 가지가 있으면 다른 것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원래 67권이었는지 혹은 68권이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이러한 정경의 기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핵심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정경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정경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때문인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많은 성경 사본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운가? 좀더 정확하게 말해서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이 원본과 거의 같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사실 원본이 없는 지금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없이는 어떠한 사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물론 학문적으로 다른 고대 문서들의 사본을 다루듯이 연구 분석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

는 것은 이 정도의 학문이 아니라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런 학문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믿자!"는 식의 말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여 우리에게 원본과 똑같은 권위의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비로소 사본 연구가 가치 있는 학문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개혁주의는 교회 목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는 전적으로 인간의 작업으로 그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한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보수주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실천적 적용을 이론적 원리 뒤에 오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일단 이론적 원리가 수립되면 거기에 맞추어 실천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리적 혹은 해석학적 원리가 먼저 주어져야 그 다음 그것에 따라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 적용이나 실천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 요소로 그친다는 것이다. 솔직히 이러한 경향이 개혁주의 전통에 없지 않아 있어 왔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주의는 이론과 실제,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라고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의 지식과 존재는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틸은 하나님의 특수성은 일반성과 완전하게 일관되고 조화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을 유일한 자존적 사실(the only self-existent fact)로 정의하셨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위해 다른 것과 비교하여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 또한 한 특정한 예로서 하나님을 포함하는 어떤 일반적 존재는 있을 수 없다. 그리

고 하나님 자신 안에서 스스로 역사하는 절대적인 존재[하나님]로부터 독립된 존재는 없다.⁶⁾

이러한 주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세부적인 배려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원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대한 이슈가 그의 자상한 돌보심과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상한 돌보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일이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은 같은 차원의 일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우리의 실천과 이론은 분리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신학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에 관해서 얻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일관된 신학 체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한다(잠 1:7).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과 그 뜻대로 사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그의 뜻을 깨달아서 그의 뜻대로 살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관적 모습을 따라 우리의 신학도 일관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6) Van Til, *An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p. 232. 흥미롭게도 반틸은 유심론에서 주로 다루는 ‘하나와 여럿’(the one and the many) 문제, 즉 ‘일반성과 특수성’ 문제의 해결을 하나이시며 세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찾는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이러한 일반성과 특수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실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해야 한다고 반틸은 주장한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실재는 우연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때까지 그랬듯이 일관성 있는 신학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는 인간 지적 능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지적 활동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우리 스스로 지식의 날개를 펴고 하늘까지 날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지적 능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것이다. 인간의 지적 활동에 있어서 인식 대상(object)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는 대상’을 생각할 수도 없다. 그 알 수 없는 대상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안다는 것이다. 사실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조차,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어떤 불가지론(agnosticism)이나 회의주의(skepticism)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모든 객관적 지식을 부인하는 주관주의(subjectivism)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인간 이성에는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 한계성은 인간의 피조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 이성의 한계성 인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앎으로 우리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불신자들이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피조물인 것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高尚)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바른 이성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이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의 범위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한계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존재가 신의 존재와는 달리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이 신의 지식과는 달리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가? 신학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지식의 한계성을 잠시 접어두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그래서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지식의 날개를 펴고 하늘까지 날아가기를 원한다면, 즉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기 원한다면 유일한 길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나서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사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반틸의 다른 말을 빌어 말하자면 우리 지식의 “최종 참조점”(the final reference-point)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계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계시가 우리 지식의 체계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일관성 있는 신학 체계의 전제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계시 반틸은 그의 『조직신학서론』을 이렇게 시작한다. “정통(orthodox)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전제하고 성경에 쓰여진 그의 무오한 계시를 전제하는 것이다.”⁷⁾ 반틸이 말하는 전제(presupposition)란 단순히 어떤 가설이나 가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렉 반슨(Greg L. Bahnsen)은 반틸이 말하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제는 단순히 한 논의의 가정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의 체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신념[각오, 헌신](commitment)이다. 전제란 모든 다른 것이 해석되고 평가되는 넓은 범위의 근본적인 관점(혹은 출발점)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전제란 사람의 사고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믿음과 수정의

7) Van Til, *An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p. 1.

여지가 없는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⁸⁾

다시 말하면 반틸에게서 전제란 모든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초월적(transcendental) 조건과 같은 것이다.⁹⁾ 즉 전제란 우리가 지적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일 먼저 내세우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제란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다. 반틸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자의식(self-consciousness)은 신의식(God-consciousness)을 전제한다. 칼빈은 이것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신의식’(sense of deity)이라고 말한다.”¹⁰⁾ 여기 인간의 ‘자의식’이란 단순히 인간이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신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인간의 자의식이 그의 피조물 됨에서 온다는 것을 반틸은 강조한다. 이러한 반틸의 주장은 사실 칼빈의 ‘신의식’ 주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다.

8) Greg L. Bahnsen, *Van Til's Apologetic: Readings & Analysis*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Co., 1998), p. 2, n. 4.

9) John M. Frame, *Cornelius Van Til: An Analysis of His Thought*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Co., 1995), pp. 131~36 참조. 여기서 프레임은 반틸의 “초월적 방법”(transcendental method)이 칸트의 “초월적 방법”과 형식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칸트의 초월의 개념은 어떤 실천적 필요에 의해 추론(postulate)된 추상적이고 형식적(formal)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인 것이다. 단지 경험적 세계의 가능성을 위해 주어진 가정에 불과하다.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어떻게 인간 경험적 세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다. 반면에 반틸이 말하는 ‘초월’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바로 계시로써 밝혀진 영역인 것이다. 즉 삼위 하나님과 그의 계시인 것이다.

10) Van Til, *The Defense of the Faith*, p. 90

흔히 반틸의 '전제' 개념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혹은 이성의 활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전제할 수 있느냐?"라는 말들을 한다. 이것은 반틸이 말하는 전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전제란 우리의 이성으로 혹은 생각으로 전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의 활동의 궁극적인 기준과 그 가능성의 근거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 우리의 이성에 긍정적으로 여과되어야 하나님의 존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이성, 경험, 지식의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이다. 물론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 신자들도 불신자와 똑같이 생각해야 정당하고 공정한 것이 아니다. 불신자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7:27~28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말씀한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사람' 혹은 '우리 각 사람'이란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즉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자에게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자가 살며 기동하며 있는 것이다. 여기 한글 개역에는 "있느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은 'ἐοικέν'이다. 직역하면 '우리는 있다'이다. 여기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는 모두 보어가 없는 동사들이다. 즉 '우리가 있느니라'는 말은 특별히 헬라 사람들에게 철학적 논쟁과 변증을 하고 있는 바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존재한다'는 말로 이해해야 것이다.¹¹⁾ 한마디로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가 하나님이 계시므로 살아가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삶과 존재에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반틸이 말하는 전제는 이러한 전

11) 개역 개정판에는 "존재하느니라"로 잘 번역하였다.

제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반틸이 하나님과 그의 계시가 우리 지식 활동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그의 계시의 권위는 인간의 이성의 여과를 거친 후에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의 지식 활동이 우리의 삶이나 존재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지식 활동 역시 하나님을 힘입어 되어진다는 것이다. 반틸이 늘 하는 예화 중 이러한 것이 있다. 반틸이 그랜드 래피드에서 디트로이트로 가는 기차 칸에서 목격한 이야기이다. 한 여자아이가 아빠 무릎에 앉아 있다가 무슨 영문인지 아빠 뺨을 때렸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가지고 반틸은 불신자가 하나님을 대항(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하는 것은 바로 어떤 근거가 있어서 대항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아빠가 그 아이를 의자 밑에 내동댕이치든지 창 밖으로 던져버렸으면 아빠 뺨을 때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무릎에 앉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즉 불신자의 그러한 대항은 하나님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틸은 말하기를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할 때도 하나님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전제로서 '신지식'(the knowledge of God)은 칼빈이나 반틸의 주장에 앞서 로마서 1:18~23에 이미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1:18~19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suppress)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말씀한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보이셨다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불의로 진리를 일부러 막는(suppress)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몰랐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롭지 못할 것이지만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로운 것이다. 반틸이 말하는 전체가 바로 모든 인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 즉 하나님과 그의 계시인 것이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지식 활동을 위해 인위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된 인간이면 다 갖고 있는 초월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궁극적 전체가 개혁주의의 총체적 신학을 위해 필요한 이유는 모든 신학을 연결하는 일관성 때문이다. 그 궁극적 전체(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계시)는 인간의 지식 활동 이전에 이미 초월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신학적 혹은 신앙적 활동의 출발점이 이러한 전체로 시작되지 않고 인간 나름대로의 세계관이나 신학적 관점에서 시작되면 분명 각기 다른 신학적 체계들이 세워질 것이다. 그 동안의 많은 개혁주의 학자들의 신학 체계가 어떠한 신학보다 일관성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일관된 바른 전체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신념하고 확신하는 것이 그들의 신학적 체계 이전에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출발점으로 시작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신학과 신앙을 세워나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의 지식적 영역을 포함하여 우리 모든 삶의 궁극적 전체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계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좀더 구체적으로 반틸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개혁주의에서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두 종류의 계시를 강조해 왔다. 반틸 역시 이 전통을 따른다. 그런

데 흥미로운 것은 다른 개혁주의 학자들보다 그는 일반계시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 심지어 개혁자들이 특별계시에 관해 주장한 바를 일반계시에도 적용한다. 즉 일반계시도 ‘필수적’(necessary)이고 ‘권위적’(authoritative)이고 ‘충분하고’(sufficient), ‘명료하다’(perspicuous)고 반틸은 주장한다.¹²⁾ 이러한 주장은 언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다. 일반계시를 이렇게 높이 평가할 때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의 권위가 약해지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틸의 주장은 결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실재(reality)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나타내지(계시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일단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필연적이고 권위적이고 충분하고 명료하다는 것이다. 로마서 1:20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는 말씀은 분명 일반계시 역시 권위가 있고 명료하며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계시의 필요성은 일반계시가 문제가 있거나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반틸은 주장한다. 특별계시가 없으면 인간은 일반계시를 바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틸은 전통적 개혁주의의 가르침을 따라 특별계시, 특히 성경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성경이야말로 우리 삶과 신앙에 유일한 하나님의 법칙이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지식과 행동의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기준임을 강조한다. 그는 주장하기를 창조된 모든 우주의 사실들의 해석은 반드시 성경에 비취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¹³⁾ 또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12) Cornelius Van Til, *Christian Apologetic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5), pp. 30~37 참조.

13) *Ibid.*, pp. 23~29 참조.

하나님의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말하기를 “성경 사상(idea)은 성경 메시지(message)와 분리될 수 없다”고 한다.¹⁴⁾ 즉 성경의 내용은 성경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한 신념과 지식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잘 해석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과 해석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오는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반틸은 이 사실을 자합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당연한 귀결로 보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 안에서는 그의 존재와 지식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존재에서 주권적이라면 그의 계시에도 반드시 주권적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말씀을 주실 때와 보존하실 때 다 역사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도 강한 개혁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 일반계시에 대한 반틸의 특별한 강조는 우리로 하여금 좀더 일관성 있는 신학체계를 세우도록 어떤 충동을 준다고 하겠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는 ‘맹목적 성경주의’(the Biblicism)을 답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구체적인 경제 투자 원리, 과학의 상대성 원리, 자연의 배양 원리들을 성경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삶의(과학, 경제, 자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근본적 원리는 말씀하지만 세밀한 원리는 말씀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일반계시를 바로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일반계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또한 역으로 우리는 성경을 단지 어떤 지식적 해석의 대상으로만 알고 그것을 이리 저리 다루는 것으

14) E. R. Geehan, ed. “My Credo,” in *Jerusalem and Athens: Critical Discussion on the Theology and Apologetics of Cornelius Van Til*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1), p. 8.

로 다 된 줄로 오해할 수 있다. 성경은 일반계시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면 성경을 그렇게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한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과 일반계시에 똑같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계시의 중요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좀더 총체적이고 일관된 신학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신학은 우리의 지식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을 단순히 한 고대 문헌 정도로 보며 그것을 학적으로 해석하고 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치는 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먼 신학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신학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든가 사람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지적 만족이나 지적 과시는 바른 신학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결론

한국교회에 개혁주의의 위상이 다시 세워지려면 무엇보다도 개혁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 잘못된 인식을 고치는 지름길은 일관성 있는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신학은 결코 지식의 상아탑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신학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의 역동적인 계시로부터 오는 총체적 지식과 삶의 표현인 것이다. 전반적으로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소위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한국교회들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국교회의 문제를 바로 직시하고 고쳐줄 수 있는 신학 체계는 개혁신학뿐일 것이다. 개혁신학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

서는 먼저 일관성 있는 개혁신학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살아 계신 성 삼위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고 그의 살아 있는 말씀의 권위를 다시 회복함으로 가능할 것이다.

소위 개혁주의를 추구하고 지킨다는 여러 한국 신학교들이 바른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지 않는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말만 개혁주의지 실상은 아무 신학이나 들여와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개혁신학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신학교라 한다면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한 그리고 상응하는 신학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우리를 앞서간 개혁신학자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모든 교수들이 개혁신학의 일관성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사들의 세계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교권, 금권, 성적 타락, 대형 교회 추구, 유명세, 권위의식, 치열한 생존 경쟁 등의 모습들이 바로 그 증거이다. 사실 목사는 다른 성도보다 특별히 대접받을 이유가 한 가지 외에는 하나도 없다. 그 한 가지 예외는 바로 말씀 가운데 잘 다스리고 또한 말씀을 잘 가르칠 때뿐이다. 목사나 집사나 일반 성도나 모두가 단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일 뿐이다. 그런데 더 슬픈 일은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그리고 목사 자신들도 알고 있는데도 인정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바로 일관성 있는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의 가르침이 교회와 자신들 삶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용이 안 될 때는 단지 목사들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도 아울러 추락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가? 마찬가지로. 그런 지도자들을 두고 있는 성도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성경적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것인 줄 알고 산다. 심지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하며 따라 사는 것이 한국교회 실정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왜 발생되었는가? 한마디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의 결여일 것이다.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도록 하고, 또한 이 두 가지를 엮어주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인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길은 오직 일관성 있는 개혁주의 신학을 다시 정립하는 길뿐이다.(*).